

일부지역 성인들의 음주 안전사고 유형 및 행태

박상섭* · 백홍석**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에서 술은 모임이나 각종 행사에서 즐거움과 슬픔을 이겨내는 매개 물질로 사용되었다. 술에 대한 문화가 관대하게 작용하여 술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또한, 술은 사람들에게 심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물질로 인식되어 왔으며 다양한 문화 속에 스며들어 사용되고 있다.

술은 두 가지 의미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일상적인 흐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기능을 한다. 첫째, 일상으로부터 집단적인 이탈을 표시하는 음주행위로 일에서 벗어나 특별한 행사나 의례적인 축제에서의 음주와 같이 문화적으로 규제된 전이의 형태인데 이러한 유형은 농경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둘째, 개인적인 휴식이며, 직장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며, 현대 사회에서 주로 발견되는 유형이다¹⁾.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 술은 상반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한 면은 사회적 친화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면으로써, 연회, 결혼식, 축하연과 같은 축제 행사에 빠질 수 없는 일부분이다. 또

한 우정을 다짐하고, 통과 의례 또는 종교적 절차의 일부분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때로는 치료의 목적으로도 사용되어 왔다¹⁾.

그러나 알코올은 과도하게 마시면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비참하게 만들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많으며 알코올 소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즉 술로 인한 폭력 및 사고사, 살인, 자살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²⁾.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량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음주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거나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 음주문제는 해결이 곤란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또한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능력이 있으며 일도 잘한다라고 생각하며 술 문제는 의지가 모자라거나 도덕적인 문제로만 생각하고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으며, 이러한 문화와 인식 등의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알코올 소비량이 다른 선진국과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의 음주 만연, 작업장의 생산성 손실, 가정 내 폭력, 사망, 음주 운전사고, 알코올 중독 문제 등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현실이다³⁾.

최 등⁴⁾의 연구에 의하면, 손상기전은 비 음주 외상환자의 경우 미끄러짐 손상이 21.0%, 부주의에 의한 자상이 17.6%, 차내 사고가 9.9%, 구타 및 싸움이 9.0% 순이었으며, 음주 외상환자는 구타 싸움 손상이 3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미끄러

* 성덕대학 응급구조과

** 을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응급구조학과

집 손상 27.6%, 부주의에 의한 자상손상 17.7% 순으로 나타나 서로 다른 손상 기전을 보였다.

외상환자 가운데 비 음주 환자에 비해 음주 환자의 경우 교통사고, 방화 등의 위험성이 높고 사망률도 높아 모든 외상환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통한 특별 치료가 필요하며 평소에도 집중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외상의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⁵⁾.

이런 음주가 외상의 주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가 Cherpitel 등⁶⁾에 의해 보고된 바 있으며 이 보고에 따르면 음주를 매주 하는 사람,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손상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음은 간경변, 간암 발생의 위험요인일 뿐만 아니라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교통사고, 자살 및 타살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위장 및 췌장질환, 신경계질환, 감정 장애 등과 같은 정신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⁷⁾.

최윤희 등⁸⁾ 연구에 의하면 음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29.5%, 미끄러짐에 의한 손상이 24.8%로 보고되었다.

적당한 음주는 심근경색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영양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⁹⁾, 본인의 주량보다 많이 마시거나, 적당하게 마셨더라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하여 타인과의 말다툼, 폭력, 낙상 및 추락,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킨다.

이로 인하여 외상적 사고가 발생하여 개인의 건강적 피해, 사회적 피해, 경제적 피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음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나 알코올과 외상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거의 없는 형편 이어서 연구를 하게 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성인 계층의 성인들의 음주 안전사고 유형 및 행태에 대하여 파악함으로써 성인들의 음주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호 하며 건전한 음주프로

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하며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들의 음주에 대한 음주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성인들의 음주로 인한 음주사고 유형을 파악한다.

셋째, 성인들의 음주사고로부터 경제적 손실 실태를 파악한다.

넷째, 성인들의 음주사고로부터 관련된 생명 실태를 파악한다.

다섯째, 성인들의 음주사고로부터 스트레스 및 생활관련 상태변화에 대하여 파악한다.

이처럼 음주 사고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음주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줄임으로써 사회 활동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20세 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4개 지역(대구, 마산, 창원, 진해) 30인 이상 사업체 20곳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회수된 673부(회수율 84.13%) 중 부적격자 20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653부를 결과 처리에 이용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6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30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음주사고 유형 및 생명상태에 대한 설문 응답이 저조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2006년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도구

연구자와 훈련된 연구보조자(10명)가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연구의 목적과 설문 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 내용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일반적 특성(7 문항), 음주에 관련(4문항), 음주사고에 관련(8문항), 음주사고 경제 비용 관련(6문항), 음주 습관변화에 관련(4문항), 심리관련 설문은 한²¹⁾ 연구에 의한 음주사고 후 심리 사회적 특성에 관련(9문항) 등을 연구자와 조사 대상자간의 1대 1의 면접 조사 방법을 시행하였다. 1대 1 면접 방법은 연구 대상자에 대하여 연구의 목적과 설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1대 1 면접 방법을 시행하였다.

3. 분석 방법

총 800부 설문지 중 조사대상자로부터 회수된 설문지는 673부(회수율 84.1%)이었으며 회수된 자료 중 653부로 통계처리를 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hi-square Analysis)검정, t 검정(t-test), 다중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일원변량분석(ANOVA)을 활용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조사대상 중 남자는 61.0%, 여자는 39.0%였으며, 연령층은 20~24세가 15.6%, 25~29세 17.1%, 30~34세가 24.0%, 35~39세가 21.8%, 40세 이상이 21.6%였다.

직업은 제조업이 45.8%로 가장 많았고 의료종사자 23.9%, 운수·창고업 10.1%, 유통서비스업 7.3%, 공무원 6.6%, 건설업 6.3% 순이었다.

거주지는 중·소도시가 47.1%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 거주자는 35.6%, 읍·면 거주자는 17.2%였다. 학력은 고졸이 48.8%, 전문대졸 이상이 43.2% 순이었으며, 초·중졸은 7.7%, 무학은 0.2%였다.

결혼여부에 있어서는 기혼 53.3%, 미혼 41.8%, 사별/별거/이혼 4.8% 순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에 관해서는 100만원 미만이 26.7%, 100~149만원이 28.5%, 150~199만원 27.9%, 200~249만원은 15.4%, 250만원 이상은 1.4%이었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구분 | 빈도(명) | 백분율(%) | |
|---------|----------|--------|------|
| 성별 | 남 | 404 | 61.0 |
| | 여 | 258 | 39.0 |
| 연령(세) | 20~24 | 103 | 15.6 |
| | 25~29 | 113 | 17.1 |
| | 30~34 | 159 | 24.0 |
| | 35~39 | 144 | 21.8 |
| | 40 ≤ | 143 | 21.6 |
| 직업 | 유통서비스업 | 48 | 7.3 |
| | 제조업 | 303 | 45.8 |
| | 공무원 | 44 | 6.6 |
| | 건설업 | 42 | 6.3 |
| | 운수·창고업 | 67 | 10.1 |
| | 의료종사자 | 158 | 23.9 |
| 거주지 | 대도시 | 236 | 35.6 |
| | 중·소도시 | 312 | 47.1 |
| | 읍·면 | 114 | 17.2 |
| 학력 | 무학 | 1 | 0.2 |
| | 초 중졸 | 51 | 7.7 |
| | 고졸 | 324 | 48.9 |
| | 전문대졸 ≤ | 286 | 43.2 |
| 결혼여부 | 미혼 | 277 | 41.8 |
| | 기혼 | 353 | 53.3 |
| | 사별/별거/이혼 | 32 | 4.8 |
| 월수입(만원) | < 100 | 177 | 26.7 |
| | 100~149 | 189 | 28.5 |
| | 150~199 | 185 | 27.9 |
| | 200~249 | 102 | 15.4 |
| | 250 ≤ | 9 | 1.4 |

2. 성별에 따른 음주 실태

음주자 성별에 따른 음주 실태에서 술의 종류, 음주시작시기, 음주기간, 1년 내 과음횟수를 살펴보면, 술의 종류에서는 남자는 소주(44.1%)를 많이

<표 2> 성별에 따른 음주 실태

| 구 분 | | 성 별 | | 계 | χ ² |
|-------------|-------|------------|------------|------------|----------------|
| | | 남 | 여 | | |
| 술의 종류 | 소주 | 44.1 | 17.1 | 33.3(218) | 48.839 *** |
| | 맥주 | 39.2 | 69.4 | 51.1(334) | |
| | 양주 | 7.8 | 9.3 | 8.4(55) | |
| | 막걸리 | 7.8 | 3.9 | 6.3(41) | |
| | 전통주 | 1.0 | 0.4 | 0.8(5) | |
| | 계 | 100.0(395) | 100.0(258) | 100.0(653) | |
| 음주 시작시기 (세) | < 20 | 93.9 | 42.6 | 73.7(481) | 214.937 *** |
| | 21~25 | 5.8 | 56.2 | 25.7(168) | |
| | 26~30 | - | 1.2 | 0.5(3) | |
| | 30 ≤ | 0.3 | - | 0.2(1) | |
| | 계 | 100.0(395) | 100.0(258) | 100.0(653) | |
| 음주 기간 (년) | < 5 | 10.4 | 30.2 | 18.2(119) | 57.711 *** |
| | 6~10 | 22.5 | 22.5 | 22.5(147) | |
| | 11~15 | 19.0 | 23.3 | 20.7(135) | |
| | 16~20 | 8.1 | 4.3 | 6.6(43) | |
| | 20 ≤ | 40.0 | 19.8 | 32.0(209) | |
| | 계 | 100.0(395) | 100.0(258) | 100.0(653) | |
| 1년 내 과음 횟수 | 1회 | 5.1 | 12.8 | 8.1(53) | 186.361 *** |
| | 2회 | 9.1 | 41.5 | 21.9(143) | |
| | 3회 | 24.3 | 10.1 | 18.7(122) | |
| | 4회 ≤ | 58.5 | 20.2 | 43.3(283) | |
| | 무 | 3.0 | 15.5 | 8.0(52) | |
| | 계 | 100.0(395) | 100.0(258) | 100.0(653) | |

*** p < .001

마시고 있었으며, 여자는 맥주(69.4%)를 많이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주를 처음 시작한 시기는 남자의 경우 93.9%가 20세 미만에 시작한 것으로, 여자(42.6%)보다 높았으며, 여자는 56.2%가 21~25세 사이에 음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음주기간은 남자가 20년 이상 마셔 온 경우의 응답이 40.0%로 가장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는 5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30.2%이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오랜 기간 동안 술을 마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년 내 과음 횟수결과에서 남자의 경우 4회 이상이 58.5%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2회인 경우가

41.5%로 가장 높았는데, 남성들의 사회 활동으로 술자리 문화가 여성보다 많아서 과음 횟수가 많다고 여겨진다.

3. 음주로 인한 사고 경험

음주로 인한 음주 사고 경험 전체를 살펴보면 사고가 있음이 79.1%, 사고가 없음이 20.9%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의 경우 음주사고 경험이 87.1%로 여자의 66.7%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p < .001), 연령별로는 음주 사고 경험이 높았다.

<표 3> 음주로 인한 사고 경험

단위 : %, (명)

| 구 분 | 음주사고유무 | | 계 100.0(653) | X ² | |
|-------------|----------------|----------------|-----------------|----------------|--------|
| | 유 79.1(517) | 무 20.9(136) | | | |
| 성별 | 남 | 87.1 | 12.8 | 100.0(397) | 44.253 |
| | 여 | 66.7 | 33.2 | 100.0(256) | *** |
| 연령 (세) | 20~24 | 79.4 | 20.6 | 100.0(102) | 36.372 |
| | 25~29 | 60.0 | 40.0 | 100.0(110) | *** |
| | 30~34 | 88.7 | 11.3 | 100.0(158) | |
| | 35~39 | 85.9 | 16.3 | 100.0(141) | |
| | 40 ≤ | 78.9 | 21.1 | 100.0(142) | |
| 직업 | 유통서비스업 | 54.4 | 45.6 | 100.0(46) | 99.353 |
| | 제조업 | 89.8 | 10.2 | 100.0(301) | *** |
| | 공무원 | 31.9 | 68.1 | 100.0(44) | |
| | 건설업 | 80.5 | 19.5 | 100.0(41) | |
| | 운수·창고업 | 70.6 | 29.4 | 100.0(68) | |
| | 의료종사자 | 83.0 | 16.9 | 100.0(153) | |
| 거주지 | 대도시 | 83.0 | 17.0 | 100.0(234) | 20.255 |
| | 중·소도시 | 82.1 | 17.9 | 100.0(306) | *** |
| | 읍·면 | 63.7 | 36.2 | 100.0(113) | |
| 학력 | 무학 | - | 100.0 | 100.0(1) | 5.882 |
| | 초·중졸 | 72.5 | 27.5 | 100.0(51) | |
| | 고졸 | 79.7 | 20.3 | 100.0(319) | |
| | 전문대졸 ≤ | 80.1 | 19.8 | 100.0(282) | |
| 결혼여부 | 미혼 | 78.9 | 21.1 | 100.0(274) | 2.269 |
| | 기혼 | 79.6 | 20.4 | 100.0(347) | |
| | 사별/별거/이혼 | 78.1 | 21.8 | 100.0(32) | |
| 월수입 (만원) | < 100 | 71.0 | 29.0 | 100.0(172) | 16.538 |
| | 100~149 | 79.6 | 22.4 | 100.0(187) | ** |
| | 150~199 | 86.6 | 13.4 | 100.0(186) | |
| | 200~249 | 83.8 | 16.2 | 100.0(99) | |
| | 250 ≤ | 66.7 | 33.3 | 100.0(9) | |

** p < .01, *** p < .001

직업은 제조업이 음주사고 경험이 있는 경우가 89.8%로 가장 높았던 반면, 공무원의 음주사고 경험은 31.9%로 업종 중 가장 낮게 보였으며, 거주지별로는 읍면단위(63.7%) 보다 대도시(83.0%)중 소도시(82.1%)에서 음주사고 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학력별로는 초·중졸(72.5%) 및 고졸(79.7%)보다 전문대졸(80.1%)의 고학력일수록 음주 사고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음주 사고 경험이 높은 이유를 지적해 보면, 왕성한 사회활동과 음주

사고의 위험성을 과소평가 하거나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안전 의식부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 음주 사고 경험에 대한 회귀분석

대상의 일반적 사항과 음주특성이 음주사고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서 직업과 결혼여부의 경우는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형모형의 적합도는

<표 4> 음주 사고 경험에 대한 회귀분석

| | | B | Std. Error | Beta | t | P-value |
|--------------|------|--------------|-----------------------|---------------------------|--------|---------|
| 성별 | | -.039 | .021 | -.093 | -1.865 | .063 |
| 연령(세) | | -.002 | .031 | -.008 | -.079 | .937 |
| 직업 | 서비스업 | .272 | .060 | .174 | 4.575 | .000 |
| | | | | | *** | |
| | 회사원 | .010 | .045 | .013 | .231 | .818 |
| | 공무원 | .520 | .069 | .318 | 7.509 | .000 |
| | | | | | *** | |
| 현장직 | | .088 | .076 | .053 | 1.167 | .244 |
| | 무직 | .105 | .055 | .079 | 1.926 | .054 |
| 거주지 | | -.014 | .023 | -.024 | -.608 | .543 |
| 학력 | | -.049 | .028 | -.076 | -1.731 | .084 |
| 결혼여부 | 미혼 | .144 | .096 | .176 | 1.499 | .134 |
| | 기혼 | .119 | .090 | .146 | 1.327 | .185 |
| | 사별 | .348 | .128 | .129 | 2.726 | .007 |
| | | | | ** | | |
| 월수입(만원) | | -.010 | .026 | -.026 | -.371 | .710 |
| 음주시작시기 | | -.047 | .048 | -.052 | -.983 | .326 |
| 음주기간 | | -.023 | .027 | -.084 | -.821 | .412 |
| 1년 내 과음횟수 | | -.105 | .013 | -.334 | -8.096 | .000 |
| | | | | | *** | |
| 종속변수: 음주사고경험 | | F: 16.190*** | R ² : .289 | Adj.R ² : .272 | | |

*** p < .001, ** p < .01

AdjR²이 .272로 종속변수인 음주사고 경험유무에 대한 전체 설명력이 27.26%였으며, F값은 16.19(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사고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1년 내 과음횟수가 B = -.105, p < .001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의 경우 서비스업, 회사원, 공무원, 현장직, 무직, 기타로 나뉜 직업군에서 기타 직업군을 기준으로 놓고 나머지 직업군을 더미변수로 만들어 분석한 결과 공무원과 서비스업이 음주사고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p < .001). 또한, 미혼,

기혼, 사별, 이혼으로 나뉜 결혼상태에서 이혼을 기준으로 놓고 나머지를 더미변수로 만들어 분석한 결과 사별의 경우 음주사고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p < .01).

5. 성별에 따른 음주 사고 실태

남녀 전체에 대해서 음주사고 횟수와 관계 살펴보면, 1회의 경우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회가 33.2%로 뒤를 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의 경우 음주사고 횟수가 2회일 때(46.5%) 여자(6.4%)보다 높은 비율을 나

<표 5> 성별에 따른 음주 사고 실태

단위 : %, (명)

| 구 분 | | 성 별 | | 계 | x ² |
|-----------|------------|------------|------------|------------|----------------|
| | | 남 | 여 | | |
| 음주사고 횟수 | 1회 | 42.7 | 90.0 | 58.4 (302) | 101.422 |
| | 2회 | 46.5 | 6.4 | 33.2 (172) | *** |
| | 3회 | 7.2 | 1.8 | 5.4 (28) | |
| | 4회 이상 | 3.4 | 1.8 | 2.9 (15) | |
| | 계 | 100.0(346) | 100.0(171) | 100.0(517) | |
| 음주사고 발생장소 | 술집 | 29.8 | 39.2 | 32.9(170) | 139.860 |
| | 도로 | 39.6 | 4.1 | 27.9(144) | *** |
| | 가정 내 | 10.1 | 48.5 | 22.8(118) | |
| | 길가 | 19.7 | 8.2 | 15.9(82) | |
| | 기타 | 0.9 | - | 0.6(3) | |
| | 계 | 100.0(346) | 100.0(171) | 100.0(517) | |
| 음주사고시간대 | 새벽 | 38.2 | 22.2 | 32.9(170) | 20.236 |
| | 오전 | 4.0 | 3.5 | 3.9(20) | *** |
| | 오후 | 0.3 | 0.6 | 0.4(2) | |
| | 저녁 | 13.0 | 25.7 | 17.2(89) | |
| | 늦은밤 | 44.5 | 48.0 | 45.6(236) | |
| 계 | 100.0(346) | 100.0(171) | 100.0(517) | | |
| 음주사고 계절 | 봄 | 18.8 | 42.1 | 26.5(137) | 94.017 |
| | 여름 | 21.0 | 42.7 | 28.2(146) | *** |
| | 가을 | 26.9 | 9.9 | 21.3(110) | |
| | 겨울 | 33.2 | 5.3 | 24.0(124) | |
| | 계 | 100.0(346) | 100.0(171) | 100.0(517) | |

*** p < .001

타냈고, 여자는 음주사고 횟수가 1회인 경우 (90.0%)에 남자(42.7%)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남녀 전체에 대해서 음주사고 발생장소를 살펴 보면, 술집이 32.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도로 27.9%, 가정 내 22.8%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도로(39.6%)에서의 음주사고 발생이 여자(4.1%)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가정 내(48.3%)에서가 남자의 경우(10.6%)보다 높았다.

음주사고 시간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에 대하여 늦은 밤이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새벽이 32.9%, 저녁이 1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의 경우 새벽(38.2%) 음주사

고 여자(22.2%)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늦은 밤에 48.0%로 높게 조사 되었다. 이 결과로 보아 늦은 밤이나 새벽에 음주 후 귀가하거나 이동 중에 사고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음주사고 계절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자(26.9%)는 가을에 여자(9.9%)보다 높았으며, 여자는 봄(42.1%)에 남자(18.8%)보다 높았다.

6. 1년 내 과음 횟수와 음주 사고 경험과의 관계

1년 내 과음 횟수와 음주사고 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1년 내 과음 횟수가 많을수록 음주사고

<표 6> 1년 내 과음 횟수와 음주사고 경험과의 관계

단위 : %, (명)

| 구 분 | 음주사고경험 | | 계 100.0 (653) | X ² | |
|-------|--------------------|--------------------|---------------------|----------------|----------------|
| | 유 79.1 (517) | 무 20.9 (136) | | | |
| 1년 내 | 1회 | 67.3 | 32.7 | 100.0(52) | 119.254 *** |
| 과음 횟수 | 2회 | 78.8 | 21.1 | 100.0(142) | |
| | 3회 | 83.5 | 16.5 | 100.0(121) | |
| | 4회 ≤ | 90.5 | 9.5 | 100.0(283) | |
| | 무 | 25.5 | 74.5 | 100.0(52) | |

*** p < .001

경험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년 내 과음 횟수가 3회인 경우에는 83.5%의 음주사고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7. 음주 사고 유형

음주사고 유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폭력 27.7%, 교통사고 25.7%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폭력(38.5%)과 교통사고(37.1%)의 유형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낙상 및 추락(40.2%) 사고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음주사고 유형 중 낙상 및 추락사고는 40세 이상에서는 59.1%로 높게 나타났으며, 폭력사고는 40세 이상을 제외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 교통사고는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비율이었다.

과음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에는 음주사고가 90.5%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것으로 보아서 과음 횟수가 많을수록 음주 사고 경험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은 공무원이 낙상 및 추락유형을 보인 경우는 35.7%로 다른 직업들 중 가장 높았으며 유통서비스업의 경우 폭력이 38.5%로 다른 직업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건설업은 교통사고 비율이 69.7%로 가장 높았다.

학력별로는 초·중졸일수록 교통사고 유형이 많았으며, 고졸은 낙상 및 추락사고, 전문대졸 이상은 폭음 및 기타 유형이 타 학력기준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여부별로는 기혼이 낙상 및 추락 사고유형 비율이 33.1%로 높았고, 사별/별거/이혼은 폭력 사고유형이 41.6%로 높게 조사되었다.

8. 음주 사고 유형에 대한 사고 원인

음주사고유형에 대한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낙상 및 추락의 경우 사고 원인으로는 음주로 인한 지형·지물 판단력 감소가 남녀 전체에서 42.2%를 차지하였으며, 남자의 사고원인에서는 음주로 인한 지형·지물 판단력 감소(56.0%)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자(31.8%)보다 높았으며, 여자는 음주로 인한 보행 장애(62.1%)가 높게 조사되었다.

폭력사고의 원인으로 타인과의 말다툼 시비가 남녀 전체에서 47.2%로 비율이 높게 차지하였으며 성별에서는 남자의 폭력 사고원인은 타인과의 말다툼 시비가 49.6%로 높았으며 여자의 폭력 사고원인은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 표출이 62.5%로 높았다.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에 대한 자만심이 남녀 전체에서 57.2%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성별에서는 남자는 운전에 대한 자만심이 57.1% 여자는 운

<표 7> 음주 사고 유형

단위 : %, (명)

| 구 분 | 음주사고유형 ^{주1)} | | | | 계 509 | X ² | |
|-----------------|------------------------|-----------------|-----------------------|-----------------|----------|----------------|----------------|
| | 낙상/ 추락 22.7(116) | 폭력 27.7(141) | 교통 사고 25.7(131) | 기타 23.8(121) | | | |
| 성별 | 남 | 14.5 | 38.5 | 37.1 | 9.9 | 100.0(345) | 218.848 *** |
| | 여 | 40.2 | 4.9 | 1.8 | 53.0 | 100.0(164) | |
| 연령 (세) | 20~24 | 12.3 | 42.0 | 8.6 | 37.0 | 100.0(81) | 158.715 *** |
| | 25~29 | 28.8 | 34.8 | 21.2 | 15.2 | 100.0(66) | |
| | 30~34 | 8.0 | 35.8 | 29.9 | 26.3 | 100.0(137) | |
| | 35~39 | 9.6 | 25.2 | 40.0 | 25.2 | 100.0(115) | |
| | 40 ≤ | 59.1 | 5.5 | 20.9 | 14.5 | 100.0(110) | |
| 직업 | 유통서비스업 | 15.4 | 38.5 | 42.3 | 3.8 | 100.0(26) | 93.014 *** |
| | 제조업 | 16.0 | 26.3 | 29.7 | 28.1 | 100.0(263) | |
| | 공무원 | 35.7 | 35.7 | 21.4 | 7.1 | 100.0(14) | |
| | 건설업 | 6.1 | 15.2 | 69.7 | 9.1 | 100.0(33) | |
| | 운수·창고업 | 31.3 | 37.5 | 12.5 | 18.8 | 100.0(48) | |
| | 의료종사자 | 38.4 | 27.2 | 8.0 | 26.4 | 100.0(125) | |
| | 대도시 | 19.2 | 32.1 | 38.3 | 10.4 | 100.0(193) | |
| 거주지 | 중·소도시 | 24.7 | 25.9 | 20.6 | 28.7 | 100.0(247) | 57.703 *** |
| | 읍·면 | 26.1 | 21.7 | 8.7 | 43.5 | 100.0(69) | |
| 학력 | 초·중졸 | 16.2 | 10.8 | 62.2 | 10.8 | 100.0(37) | 123.146 *** |
| | 고졸 | 35.3 | 34.1 | 6.8 | 23.7 | 100.0(249) | |
| | 전문대 ≤ | 9.9 | 23.3 | 40.8 | 26.0 | 100.0(223) | |
| 결혼 여부 | 미혼 | 11.6 | 36.6 | 28.2 | 23.6 | 100.0(216) | 71.532 *** |
| | 기혼 | 33.1 | 19.3 | 26.0 | 21.6 | 100.0(269) | |
| | 사별/별거/이혼 | 8.3 | 41.6 | - | 50.0 | 100.0(24) | |
| 월 수입 (만원) | < 100 | 14.8 | 45.1 | 9.0 | 31.1 | 100.0(122) | 139.237 *** |
| | 100~149 | 39.7 | 12.1 | 31.9 | 16.3 | 100.0(141) | |
| | 150~199 | 17.0 | 41.2 | 23.4 | 28.5 | 100.0(158) | |
| | 200~249 | 35.4 | 2.4 | 43.9 | 18.3 | 100.0(82) | |
| | 250 ≤ | 33.3 | 33.3 | 33.3 | - | 100.0(6) | |

*** p < .001

주1) 517명 음주 사고자 중에서 사고 유형은 509 명만 응답

전에 대한 자만심이 66.6%로 높게 조사되었으나, 여자 음주 운전 사고자는 3명중에서 2명이 운전제에 대한 자만심에 응답하여 높게 조사됨을 알 수 있을 을 볼 수 있다. 또한 주의 집중력 둔화가 남녀 각각 38.3%, 33.3%로 높게 조사되었다. 기타의 원인으로 남자의 경우 사회적 고립감(44.1%)이 여자

(1.1%)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는 사랑히는 이에 대한 배척(40.2%)이 남자(11.7%)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음주 후 몸의 균형이 바로 잡히지 않고 정신적으로 사물 판단 능력이 둔화되어 낙상 및 추락, 폭력, 교통사고의 원인을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표 8> 음주 사고 유형에 대한 사고 원인

단위 : %, (명)

| 사고유형 | 원인 주2) | 성 별 | | 계 100.0(509) |
|-----------|---------------------|------------|-----------|-----------------|
| | | 남 | 여 | |
| 낙상/ 추락 | 보행에 대한자만심으로 | 4.0 | 3.0 | 3.5(4) |
| | 음주로 인한 보행 장애 | 14.0 | 62.1 | 41.4(48) |
| | 음주로 인한 지형·지물 판단력 감소 | 56.0 | 31.8 | 42.2(49) |
| | 음주로 인하여 타인의 고의성 밀치기 | 20.0 | 3.0 | 11.2(12) |
| | 안전 표지판 미설치 | 6.0 | - | 2.6(3) |
| 소계 | | 100.0(50) | 100.0(66) | 100.0(116) |
| 폭력 | 타인과의 말다툼 시비 | 49.6 | 12.5 | 47.2(67) |
| | 애인의 변심 | 4.5 | 25.0 | 5.6(8) |
| | 가족간의 불화 | 9.8 | - | 9.2(13) |
| | 친구·직장동료간의 불화 | 27.0 | - | 26.1(36) |
| |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 표출 | 9.0 | 62.5 | 12.0(17) |
| 소계 | | 100.0(133) | 100.0(8) | 100.0(141) |
| 교통 사고 | 음주로 인한 협동 능력의 저하 | 1.6 | - | 1.5(2) |
| | 운전에 대한 자만심 | 57.1 | 66.6 | 57.2(75) |
| | 정보처리 능력 둔화 | 3.1 | - | 3.0(4) |
| | 주의 집중력 둔화 | 38.3 | 33.3 | 38.2(50) |
| 소계 | | 100.0(128) | 100.0(3) | 100.0(131) |
| 기타 | 사회적 고립감으로 | 44.1 | 1.1 | 13.2(16) |
| | 호기심으로 | 2.9 | 31.0 | 23.1(28) |
| | 질망 및 우울증상으로 | 17.7 | 25.3 | 23.1(28) |
| | 사랑하는 이에 대한 배척으로 | 11.7 | 40.2 | 32.3(39) |
| |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 표출 | 20.6 | 2.3 | 7.4(9) |
| | 기타 | 2.9 | - | 0.8(1) |
| 소계 | | 100.0(34) | 100.0(87) | 100.0(121) |

주2) 517명 음주 사고자 중에서 사고 유형은 509 명만 응답

9. 사고 비용 지출 실태

사고 비용 지출 실태를 살펴보면 사고 비용 지출 유형에서 남자는 폭력이 38.6% 높았으며, 여자는 낙상 및 추락이 41.2%로 높게 조사되었다.

사고비용지출 항목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남녀 전체적으로는 치료비 마련 54.4%로 비용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벌금 마련(24.6%)이 뒤를 이었다.

사고비용지출 금액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남자는 91만원 이상을 지출한 비율이 여자에 비해 높았고, 여자는 60만원 이하의 지출이 남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고비용마련 대상에 관해서는 남녀 전체적으로 볼 때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68.2%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친구·직장동료, 형제·자매, 친척에게 사고비용을 마련하는 비율이 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본인, 부모에게 마련하는 비율이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10. 음주사고 유형과 사고 비용 지출 항목과의 관계

음주사고 유형과 사고 비용 지출 항목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음주사고에 따라 치료비 마련에 53.5%로 지출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표 9> 사고 비용 지출 실태

단위: %, (명)

| 구 분 | | 성 별 | | 계 517 | X ² |
|---------------------------|---------------|------------|------------|------------|----------------|
| | | 남 | 여 | | |
| 사고 비용 지출 유형 | 낙상 및 추락 | 15.3 | 41.2 | 23.8(122) | 235.641 |
| | 폭력 | 38.6 | 4.1 | 27.3(140) | *** |
| | 교통사고 | 36.6 | 0.6 | 24.8(129) | |
| | 기타 | 9.5 | 54.1 | 24.2(126) | |
| | 계 | 100.0(346) | 100.0(171) | 100.0(517) | |
| 사고 비용 지출 항목 | 치료비 마련 | 34.8 | 94.7 | 54.4(283) | 172.375 |
| | 합의금 마련 | 26.1 | 2.4 | 18.4(95) | *** |
| | 대물에 대한 보상비 마련 | 2.0 | 1.8 | 1.9(10) | |
| | 벌금 마련 | 36.5 | - | 24.6(125) | |
| | 기타 | 0.6 | 1.2 | 0.8(4) | |
| 계 | 100.0(346) | 100.0(171) | 100.0(517) | | |
| 사고 비용 지출 금액 (만원) | < 30 | 9.5 | 53.6 | 23.8(123) | 199.972 |
| | 31~60 | 20.9 | 38.7 | 26.7(138) | *** |
| | 61~90 | 6.0 | 4.2 | 5.4(28) | |
| | 91~120 | 29.8 | 3.0 | 21.1(109) | |
| | 120 ≤ | 33.8 | 0.6 | 23.0(119) | |
| 계 | 100.0(349) | 100.0(168) | 100.0(517) | | |
| 사고비용 마련 대상 | 본인 | 65.9 | 72.4 | 68.2(353) | 47.809 |
| | 부모 | 4.9 | 16.5 | 8.6(45) | *** |
| | 친구·직장동료 | 13.2 | 4.7 | 10.4(53) | |
| | 형제·자매 | 14.0 | 2.9 | 10.4(53) | |
| | 대출 | 0.9% | 2.4 | 1.3(7) | |
| | 친척 | 1.1% | - | 0.8(4) | |
| | 기타 | - | 1.2 | 0.3(2) | |
| 계 | 100.0(349) | 100.0(170) | 100.0(517) | | |

*** p < .001

<표 10> 음주사고 유형과 사고 비용 지출 항목과의 관계

단위: %, (명)

| 구 분 | | 사고 비용 지출 항목 ^{주3)} | | | | | 계 100.0(509) | X ² |
|-------------------------------|-----------|----------------------------|--------------------|------------------------|--------------------|--------------|-----------------|----------------|
| | | 치료비 마련 53.5(271) | 합의금 마련 18.7(95) | 대물 보상 마련 2.0(10) | 벌금 마련 25.0(129) | 기타 0.8(4) | | |
| 음주 사고 유형 ^{주4)} | 낙상/ 추락 | 88.9 | 6.0 | 4.3 | 0.9 | - | 100.0(116) | 527.782 |
| | 폭력 | 14.4 | 60.4 | 2.2 | 20.9 | 2.2 | 100.0(141) | *** |
| | 교통사고 | 21.7 | 1.6 | 1.6 | 75.2 | - | 100.0(131) | |
| | 기타 | 99.2 | - | - | - | 0.8 | 100.0(121) | |

*** p < .001

주3) 517명 음주 사고자 중에서 사고 유형은 509 명만 응답

<표 11> 음주사고 유형과 사고 비용 금액과의 관계

| 구 분 | 사고 비용금액(만원) ^{주4)} | | | | | 계 100.0(509) | x ² | |
|-------------------------------|----------------------------|-----------|---------|-----------|-----------|-----------------|----------------|----------------|
| | < 30 | 31~60 | 61~90 | 91~120 | 120 ≤ | | | |
| | 23.1(117) | 26.6(135) | 5.3(27) | 21.5(109) | 23.5(119) | | | |
| 음주 사고 유형 ^{주5)} | 낙상/ 추락 | 55.6 | 34.2 | 5.1 | 3.4 | 1.7 | 100.0(116) | 469.543 *** |
| | 폭력 | 7.9 | 11.5 | 7.2 | 59.7 | 13.7 | 100.0(141) | |
| | 교통 사고 | 0.8 | 17.7 | 3.1 | 5.4 | 73.1 | 100.0(131) | |
| | 기타 | 33.6 | 47.1 | 5.9 | 10.9 | 2.5 | 100.0(121) | |

*** p < .001

주4) 517명 음주 사고자 중에서 사고 유형은 509 명만 응답

벌금 마련에 25.0%, 합의금 마련 18.7%, 대물 보상비 마련 2.0%, 기타 0.8% 순으로 조사되었다.

11. 음주사고 유형과 사고 비용 금액과의 관계

음주사고 유형과 사고 비용 금액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낙상 및 추락에 대해 사고비용이 30만원 미만일 때가 55.6%로 다른 음주사고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폭력에 대한 사고 비용이 91~120만원인 경우가 59.7%로 낙상 및 추락에는 치료비 마련을 위한 지출이 88.9%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폭력사고의 경우는 합의금 마련을 위한 지출이 각각 60.4%로 다른 사고유형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벌금 마련에 75.2%로 다른 지출 유형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볼 때도 유의한 차이였다(p < .001).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120만원 이상의 사고비용

이 드는 경우가 73.1%로 다른 사고유형에 비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따라서 교통사고는 사고비용 지출이 다른 유형보다 금액이 높음을 알 수 있다.

12. 사고자 성별에 따른 생명 상태

음주 사고자 성별에 따른 생명 상태를 살펴보면 경증상태 68.1%로 가장 높았으며 중등상태 31.5% 응급상태 0.3%로 조사되었다.

음주 사고자 특성에 따른 생명 상태에 관하여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음주사고로 인한 경증상태가 54.3%, 여자는 95.9%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남자의 중등상태(45.4%)는 여자의 경우(3.5%)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남자가 여자보다 음주로 인하여 생명상태가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12> 사고자 성별에 따른 생명 상태

단위 : %, (명)

| 구 분 | 음주사고 생명상태 | | | 계 100.0(517) | x ² | |
|-----|----------------|-------------------|-------------------|-----------------|----------------|--------|
| | 응급상태 0.3(2) | 중등상태 31.5(163) | 경증상태 68.1(352) | | | |
| 성별 | 남 | 0.2 | 45.4 | 54.3 | 100.0(346) | 95.720 |
| | 여 | 0.5 | 3.5 | 95.9 | 100.0(171) | *** |

*** p < .001

<표 13> 음주 사고 유형에 따른 생명 상태와의 관계

단위 : %, (명)

| 구 분 | 생명 상태 ^{주5)} | | | 계 100.0(509) | X ² | |
|-------------------------------|----------------------|-------------------|-------------------|-----------------|----------------|----------------|
| | 응급상태 0.4(2) | 중등상태 32.0(163) | 경증상태 67.5(344) | | | |
| 음주 사고 유형 ^{주6)} | 낙상/추락 | — | 4.3 | 95.6 | 100.0(116) | 278.204 *** |
| | 폭력 | — | 16.3 | 83.7 | 100.0(141) | |
| | 교통사고 | 0.7 | 89.3 | 9.9 | 100.0(131) | |
| | 기타 | 0.8 | 14.8 | 84.3 | 100(121) | |

*** p < .001

주5) 517명 음주 사고자 중에서 사고 유형은 509명만 응답

13. 음주 사고 유형에 따른 생명 상태와의 관계

사고유형에 따른 생명상태 관계를 살펴보면, 낙상 및 추락은 경증상태가 95.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폭력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증상태가 83.7%

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중등상태가 89.3%로 가장 높았으며 경증상태는 9.9%를 보였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낙상 및 추락과 폭력보다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14> 성별에 따른 음주 습관 변화 실태

| 구 분 | 성 별 | | 계 | | |
|----------------------------|-------------|------------|------------|-----------|--------------------------|
| | 남 | 여 | | | |
| 습관 변화 이유 | 건강상의 문제 | 3.7 | 24.5 | 10.6(55) | 102.117 *** (.000) |
| | 경제적 문제 | 8.9 | 2.9 | 6.9(36) | |
| | 가정생활의 문제 | 49.1 | 66.0 | 54.7(283) | |
| | 사회생활의 문제 | 31.5 | 5.8 | 23.0(119) | |
| | 법률적 제재의 문제 | 6.6 | — | 4.4(23) | |
| | 기타 | — | 0.5 | 0.1(1) | |
| | 계 | 100.0(346) | 100.0(171) | 517 | |
| 습관 변화 방법 | 병원치료 | 25.4 | 10.5 | 20.5(106) | 46.495 *** (.000) |
| | 전문치료기관/쉼터입소 | 3.7 | — | 2.5(13) | |
| | 회복프로그램 참가 | 4.3 | 2.3 | 3.6(19) | |
| | 가족/친구 간의 대화 | 46.3 | 42.6 | 42.5(220) | |
| | 운동/생활습관의 변화 | 19.9 | 44.4 | 28.0(139) | |
| | 기타 | 0.2 | — | 0.1(1) | |
| 계 | 100.0(346) | 100.0(171) | 100.0(517) | | |
| 습관 변화 영향 미친 사람 | 부모 | 6.3 | 19.3 | 10.6(55) | 88.853 *** (.000) |
| | 배우자 | 32.0 | 26.3 | 30.2(156) | |
| | 자녀 | 3.4 | 18.1 | 8.3(43) | |
| | 친척 | 4.6 | 1.7 | 3.6(19) | |
| | 친구/직장동료 | 31.7 | 4.1 | 22.6(117) | |
| | 본인 의지 | 21.6 | 30.4 | 24.6(127) | |
| 계 | 100.0(346) | 100.0(171) | 100.0(517) | | |

*** p < .001

14. 성별에 따른 음주 습관 변화 실태

습관변화 이유의 경우, 남자는 사회생활의 문제(31.5%) 때문이라는 응답이 여자보다(5.8%) 다소 높았으며, 여자는 건강상의 문제(24.5%)와 가정생활의 문제(66.0%) 때문이라는 응답이 남자보다 높았다.

습관 변화 방법은 남녀 전체의 경우는 사고 후 가족 및 친구 간의 대화로써 습관을 변화시켰다고 응답한 경우가 4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운동 및 생활 습관의 변화가 28.0%였다.

습관을 변화시키는 비율은 여자(10.5%)보다 남자의 경우가 25.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는 운동 및 생활습관에 변화(44.4%)를 가져오므로 습관을 변화시킨다고 응답하여 남자보다(19.9%) 다소 높게 나타났다.

습관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람을 살펴보면, 남자는 배우자(32.0%), 친구 및 직장동료(31.7%)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자보다 높았고, 여자는 부모

(19.3%), 자녀(18.1%), 본인의 의지(30.4%)가 남자보다 높았다.

15. 심리·사회적 상태변화

생활과 관련하여 순전히 음주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본 경험이 있다가 2.36점, 음주사고로 가족으로부터 비인간적 대접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2.33점 순이었다.

경제와 관련하여서는 음주사고로 인해 직장에서 지장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2.3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음주사고 후 사고 비용 부담으로 경제력이 위축된 적이 있는 경우가 2.27점 순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관련하여서는 음주사고 후 비용부담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적이 있는 경우가 2.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음주사고 후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낀 적이 많은 경우가 2.37점 나타났다.

<표 15> 심리·사회적 상태변화

| 항 목 | | M±SD 2.22±0.91 | N 517 | t/F |
|---------|-----------------------------------|-------------------|----------|--------|
| 생활 관련 | 음주 사고 후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된 적이 있다. | 2.32±1.006 | 517 | 63.342 |
| | 순전히 음주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다. | 2.36±1.129 | 517 | *** |
| | 음주 사고로 가족으로부터 비 인간적 대접을 받은 적이 있다. | 2.33±.853 | 517 | |
| 경제관련 | 음주 사고 후 경제적 비용 문제로 돈을 빌린 적이 있다. | 2.25±1.127 | 517 | 49.912 |
| | 음주사고로 인하여 직장에서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 | 2.39±1.113 | 517 | *** |
| | 음주사고 후 사고 비용 부담으로 경제력이 위축된 적이 있다. | 2.27±1.334 | 517 | |
| 스트레스 관련 | 음주 사고 후 비용 부담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적이 있다. | 2.57±1.285 | 517 | 54.396 |
| | 음주 사고 후 미래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낀 적이 많다. | 2.37±1.191 | 517 | *** |
| | 음주 사고 후 사고 후유증으로 불안함을 많이 느낀다. | 2.13±1.018 | 517 | |

*** p < .001 N: 명, M: 평균, SD: 표준편차
 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거의 그렇다 4점, 아주 그렇다 5점으로 계산

IV. 고 찰

일상생활에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사람은 놀이를 통하여, 모임을 통하여, 집단적 모임 행사를 통하여 술을 하게 된다. 술을 마시는 이때에 적당한 음주는 관상동맥질환을 예방하고 사망률의 감소효과와 조직 구성원간의 결속력의 강화 및 문제의 원활한 해결 등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양의 음주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적정수준을 벗어난 음주는 무단 운전이나 추락 등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나아가 알코올 중독에까지 이르게 되면 가정문제, 직장문제 등이 발생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¹⁰⁾.

개인의 알코올 적응 체질 및 알맞은 음주량을 섭취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문제 음주는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법적 문제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생활의 파탄, 그리고 올바른 직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음주는 사회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더구나 음주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의 문화는 최근까지 문제 음주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무디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로 인한 직무수행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무관심으로 음주와 관련된 직무저하의 조기 발견이나 이에 대한 대처방안의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¹¹⁾.

이목희¹²⁾ 조사에 의하면 국내 항공기에서 2001~2004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기내 난동에서 전체 기내난동 행위 363건 중 음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가 133건으로 36.6%로 높게 보고되었다. 항공기 기내난동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협하고 자칫하면 대형 사고를 유발 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음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나 알코올과 외상(안전사고)과의 연관 관계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거의 없는 형편이어서 본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연구에 대한 고찰을 살펴봄

은 다음과 같다.

음주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김부정¹³⁾ 연구에서 음주 기간은 15년 이상 마신 사람이 41.7%로 높게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음주 시작 시기가 20세 미만(73.7%)일 때 시작하여 음주기간이 20년 이상 마신 사람이 32.0%로 높게 조사되었다. 것으로 보아 음주를 일찍 시작하여 오랜 기간 동안 마시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적인 건강 손실 및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과음 횟수 조사는 신명식¹⁰⁾ 연구에 따르는 과음 횟수 조사 결과는 3개월에 1회 즉, 1년 4회하는 비율이 36.2%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1년 내 과음 횟수가 4회 이상이 43.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원영 등¹⁴⁾ 연구에 의하면, 사고 발생 장소로서 술집에서 발생한 비율이 31~40세 사이에서 17.5%로 가장 높았으며, 본 연구에서도 음주사고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술집이 전체 32.9%로 높게 조사되었다.

시간대별 음주사고 현황에서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1999) 조사에 의하면 22:00~24:00시 사이에 20.1%, 00:00~02:00시 사이에 18.3%로 20:00~24:00시 사이에 15.9%로 00:00~02:00, 22:00~24:00시 사이가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22:00~02:00시 사이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시간대에 집중적인 음주 프로그램 활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음주사고 계절에 따른 연구결과에서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연구¹⁵⁾에 의하면, 5월과 10월에 90%인 6,443건과 9.1%인 6,517건이 발생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반면, 2월이 70.0%인 4,996건이 발생 가장 적게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여자는 봄에 42.1%, 남자는 가을에 26.9%로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와 같이 봄, 가을에 음주사고가 높은 이유는 봄과 가을에 행락철로서 관광이나 휴가 중에 음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음주사고의 원인에서 폭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미형¹⁷⁾ 등 연구에 따르면 폭력에서 말다툼 및 부부싸움의 원인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24.2%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폭력사고의 원인으로 타인과의 말다툼 시비 47.2%로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낙상 및 추락에 대한 사고원인은 지형·지물 판단력 감소가 42.2%로 높게 조사되었다.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2004 교통사고 통계분석¹⁶⁾에서 정신적, 신체적 작용둔화로 충돌이나 도로 외 이탈 등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였다고 조사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운전 중 자만심으로 인한 사고가 52.2%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음주 운전자의 자만으로 인하여 사고원인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음주 사고유형에 따른 생명상태 관계를 살펴보면 낙상 및 추락과 폭력은 각각 95.6%, 83.7%로 높게 조사되었으나, 반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부상자 중에서 중등상태가 차지하는 비율은 89.3%로 높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낙상 및 추락과 폭력보다 생명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의 경우는 이순철¹⁸⁾ 연구에 의하면 정상운전자의 사고 위험율을 1로 보았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99%일 경우는 1.98배로 사고위험률이 높아지고, 0.10%~0.149%일 경우에는 10배로 사고위험률이 높아지며, 0.15%~0.199%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면 사고위험률은 31.9배로 급증하고, 또한 물적 피해의 약 10.0%, 부상의 20.0%, 사망자의 47.0%가 음주운전에 의해 발생한다는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교통사고의 경우에 부상자 중에서 중등상태가 차지하는 비율은 89.3%로 위험성이 높아 음주 운전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음주 습관에 변화에 관련한 내용에서 김부정¹³⁾ 연구에 의하면 ‘금주 노력정도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91.7%로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주 사고자 음주 습관 변화 유무에서 ‘음주습관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96.5%로 김부정¹³⁾ 연구처럼 높게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습관변화 이

유의 경우, 남녀 모두 가정생활의 문제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4.7%로 높았다.

음주사고자 음주 습관 변화 방법을 살펴보면, 이미형 등¹⁷⁾ 연구에 의하면 가족과의 논의가 30.7%로 가장 높았으며, 본 연구에서도 사고 후 가족 및 친구 간의 대화로써 습관을 변화시켰다고 응답한 경우가 42.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습관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람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배우자(32.0%), 여자는 본인의 의지(30.4%)가 습관변화에 영향을 높게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상생활 관련에서 이미형 등¹⁷⁾ 연구에 의하면 술을 마시는 동안 가족이나 동료 이웃 등과 ‘말다툼 한 적이 있다’라는 응답에 30.3%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음주 사고 후 가족 간의 대화단절 경험이 2.32점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심리와 관련하여 이미형 등¹⁷⁾ 연구에 의하면 과음으로 인해 결근이나 조퇴한 적이 있다고 응답에 24.6%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음주사고로 인해 직장에서 지장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2.39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술이 사회생활에서 유대 관계를 위해서 좋은 연결고리 역할을 하나 반면 직장 생활에서 지장을 줌으로써 안 좋은 점을 안겨주기도 한다.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박경일¹⁹⁾ 연구에 의하면 사고 후 미래 진로 및 장래 과제에 대해서 8개 항목 중 2위를 차지하며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음주사고 후 미래에 대해 불안함을 느낀 적이 많은 경우가 2.37점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적당한 술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안겨 줄 수 있으나 문제성 음주, 장기간의 음주, 과음 등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안겨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음주 문제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기 전에는 주로 혼자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음주 행태 때문에 그 현상과악 자체부터가 매우 어렵고²⁰⁾, 과도한 음주자들에게 치료적 접근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음주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병원을 찾는 일은 거의 없으며, 스스로 병원을 찾아 왔다하더라도 의지와 끈기 부족으로

로 과도한 음주를 다시 시도할 수 있으며, 심각성을 깨닫고 병원을 찾는 것은 이미 치료 시기가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도한 음주가 개인의 삶, 가족,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과도한 음주로 인해 문제가 심각해진 후 효과적 개입이 어렵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음주 사고자들의 음주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²¹⁾.

음주사고자의 편안하고 안락한 사회생활을 음주 사고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음주사고자 대상으로 음주 교육을 실시하고 건전하게 음주사고자의 사회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운동과 취미를 통해 음주사고자의 사회생활을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세 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4개 지역(대구, 마산, 창원, 진해) 30인 이상 사업체 20곳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회수된 673부(회수율 84.1%) 중 부적격자 20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653부를 결과 처리에 이용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6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30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2006년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낙상 및 추락이 22.7%, 교통사고 25.7%, 폭력 27.7%로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각 사고에 대한 사고 원인은 낙상 및 추락 사고의 원인은 음주로 인한 지형·지물 판단력 감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42.2%, 폭력사고의 원인으로 타인과의 말다툼 시비가 47.2%,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운전태에 대한 자만심이 57.2%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음주 후 몸의 균형이 바로 잡히지 않고 정신적

으로 사물 판단 능력이 둔화되어 낙상 및 추락, 폭력, 교통사고의 원인을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지출비용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경제적 지출비용은 121만원 이상의 사고비용이 드는 경우가 73.1%로 경제적 지출비용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음주 사고자 특성에 따른 생명 상태에 관해서는 여자는 경중 상태가(95.9%) 남자(54.3%) 보다 높았으나, 남자의 중등상태(45.4%)는 여자의 경우(3.5%) 보다 높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자들의 음주로 인한 생명의 손상이 여자보다 영향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음주 사고자의 음주로 인한 스트레스 관련에서는 스트레스와 관련 하여서는 음주사고 후 비용부담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적이 있는 경우가 2.57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생활과 관련하여 순전히 음주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본 경험이 있다가 2.36점, 음주 사고 후 가족 간의 대화단절 경험이 2.32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음주 사고 시간대에 대한 음주 차량 단속 강화 및 심야 방법 단속을 철저히 시행한다. 본 연구에서 22:00~02:00시 사이에 사고 발생이 45.6%로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처럼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단속 체계를 주·야 구분없이 상시 단속 체계를 시행한다. 또한 음주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종합적인 음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음주사고 분석 연구기관을 도로 안전 관리 공단에 설치하여 음주 규제 및 홍보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서는 음주 피해를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규제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음주피해에 대한 홍보가 필요로 하다. 따라서 음주 외상 사고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사고 발생 유형 및 시간대, 생명상태 등을 분석·관리하여, 이를 통해서 전문 인력들이 국민들에게 교육·홍보함으로써 음주 사

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음주 사고에 대한 교육을 다변화 한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에 대한 사고는 개개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부재에서 발생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꾸준히 음주 사고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한다. 음주 사고 예방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직장,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음주 사고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음주사고가 줄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음주 문제는 자신이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근절해야 한다. 운동과 취미로 사회생활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을 갖추어져야 하며, 음주 안전 사고자들의 2차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개발과 음주문화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유태중, 한국 전통문화에서 본 음주에 대한 태도 및 습관. 정신 건강 연구,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1986;4:1-8.
2. 장승옥, 대학생들의 음주행위와 음주규범. 한국 사회복지학회. 1997;31:423-424.
3. 남경필, 우리나라의 알코올 문제 실태와 정책 방향 정책 자료집 보건복지위원회, 2002, p.1.
4. 최성혁, 문철규, 문준동, 이성우, 홍윤식. 음주 외상환자. 대한응급의학회지. 1999;10(2):268-269.
5. Gentilello LM, Duggan P, Drummond D, Tonnesen A, Degner EE, Fischer RP, et al.: Major injury as a unique opportunity to initiate treatment in the alcoholic. Am J Surg 1988;156:558-561.
6. Cherpitel CJ, Bond J, Ye Y, Borges G,

- Macdonald S, Giesbrecht N: A cross-national meta-analysis of alcohol and injury: data from the Emergency Room Collaborative Alcohol Analysis Project (ERCAAP). Addiction 2003;98:1277-1286.
7. Eckart MJ et al.: Health hazards associated with alcohol consumption. JAMA, 1981; 246:646-666.
8. 최윤희, 김기범, 이동훈, 어은경, 정구영, 김준식, 신동운, 김성운, 이미진. 외상환자에서 알코올 섭취가 손상의 중증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대한 응급의학회지 2006;17(3):233.
9. Tuner TB, Bennett VL, and Hernandez H: The Beneficial side of moderate drinking. Johns Hopkins Med J, 1981;148:53-63.
10. 신명식, 한국성인의 문제음주행태 관련요인 분석.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02;3(1).
11. 이명선, 노재훈, 문경환. 산업재해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요인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 회지, 1989;22(3):255-367.
12. 이목희. 근로자의 음주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안. 2004년 환경노동위원회 정책 자료집. 2004. p.26.
13. 김부정. 부랑인과 노숙인의 음주실태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36.
14. 이원영, 오현재. 음주운전 사고분석 도로교통 안전협회. 1993.
15.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 통계분석. 1999.
16.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2004 교통사고통계분석. 2004. p.340.
17. 이미형, 최은진, 고영, 이명선, 이영자, 양 수, 김수지, 직장인 문제 음주 예방프로그램 개발. 인하대학교 보건복지부. 2000.
18. 이순철. 음주운전 행동과 교통사고 위험. 교통 평화. 1998.
19. 박경일.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음주 행동에 미치

- 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32.
20. 박지영. 알코올 중독 노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정신과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2.
21. 한소영. 음주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
적 요인,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3.

=Abstract =

A Study on the Drunken Safe Accident Patterns and Behavior

Sang-Sub Park* · Hong-Sok Baek**

This study is about the drunken drivers' accident patterns and behavior and aims at providing basic data for developing measures to secure safety against accidents by drunken drivers and programs to cultivate good drinking habi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of 800 persons over 20 years of age in the selected 20 companies with more than 30 employees in the 4 regions(Daegu, Masan, Changwon, and Jinhae) and analysed the 653 sheets except invalid ones among the returned 673 survey sheets in total(return rate 84.13%), and the researcher conducted a man-to-man interview with each subject from June 20th to July 31st 2006.

The result are as the following.

As the experience of causing an accident by drinking, the 79.1% of them had the experience, and in case of the subjects with excessive drinking over 4 times a year, the rate of the accident by drinking showed as high as 90.5%.

As the patterns of accidents, in male subjects, violence(38.5%) and traffic accidents(37.1%) showed high, while in the female, hurts from falls and fall accidents(40.2%) were found be high. In case of the traffic accidents among the accidents by drinking, the rate of causing serious damage to the life was found to be 89.3%, so it showed that the traffic accidents caused by drinking were influencing on the life much.

In conclusion, the drinking problem may be controlled by each individual's will, but without change of social environment and system around people, the problem can not be eradicated. Therefore there should be social infrastructure which can help people to actively live their life with exercises and hobbies, and in order to prevent the reoccurrence of a drink accident, and social structure in which there are education programs for drink accident causers and one can change the perception about drinking culture, should be formed.

Key Words : drinking, accidents, safety

* 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Sung duk College

** 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Eulji University